

신선농산물 동남아시아 시장 수출조사

- 홍콩 포도 -

2020. 01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목 차]

I. 국내 시장동향	272
1. 생산현황	272
2. 유통현황	278
3. 소비현황	281
4. 수출현황	283
II. 홍콩 시장동향	288
1. 생산현황	288
2. 유통현황	289
3. 소비현황	296
4. 수입현황	297
III. 시장현황비교분석	305
1. 시장현황비교	305
2. 수출국 시장분석	306
IV. 시장확대방안	308
1. 품목유망성	308
2. 시장확대방안	309

I. 국내 시장동향

1. 생산현황

1) 재배품종

□ 국내에서 재배되는 포도의 주요 품종은 캠벨얼리, 거봉, MBA, 샤인머스켓, 텔라웨어 등이 있음

- 2018년 기준 캠벨얼리가 총 포도 재배면적의 52.7%를 차지하며 주로 생산됨
 - 다음으로 거봉(26.6%), MBA(9.4%), 샤인머스켓(7.4%), 텔라웨어(0.6%) 순이며 5개 품종이 전체 포도 재배면적의 약 96.8%를 차지함
- 농업관측본부에 따르면 샤인머스켓의 2019년 재배면적은 1,706ha로, 전년도 953ha에서 79% 증가함
 - 샤인머스켓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가 증가함에 따라 판매량이 증가하였고, 농가 수취가격이 높아 농가의 소득 제고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또한 포도 수출품종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의 영향으로 샤인머스켓의 재배면적이 증가함

〈표 I -1-1〉 포도 주요 품종별 특징

품종	사진	주요 특징
캠벨얼리		· 미국 오하이오 주에서 교배하여 육성된 품종으로, 국내에는 1908년 도입됨 · 숙기가 8월 하순인 조생종으로, 과방은 원추형으로 400g 정도이고, 과립은 5.5g으로 중간 정도임 · 과피는 두꺼운 편이며 자흑색을 띠고, 과육은 육질이 질긴 편으로 과피와 분리가 잘 됨 · 과즙이 많고 완숙 시 당도는 14° Bx 정도이며 산미가 적음
거봉		· 일본에서 교배하여 육성된 품종으로, 국내에는 1945년 도입됨 · 4배체 포도로 수세가 왕성하여 꽃떨이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수세조절에 노력해야함 · 숙기는 9월 중순으로 중생종이며 과방은 400g 정도, 과립은 난형으로 13g 정도임 · 과피는 자흑색이며 육질이 연하고 당도는 18° Bx 이상임

마스켓베 일리에이 (MBA)		• 일본에서 교배하여 육성된 품종으로, 국내에는 1962년 도입됨 • 숙기는 10월 상순으로 만생종이며 과방은 원추형으로 매우 큼 • 과립은 원형으로 6g의 중간정도 크기이며, 육질이 연하고 당도는 18° Bx로 머스켓 특유의 향기가 남
텔라웨어		• 수세가 강하며 결실성이 좋아 1 결과지당 3~4과방이 착과되며 꽃떨이 현상이 없음 • 숙기는 8월 하순에서 9월 상순이 중생종이며 과방중은 120g 정도, 과립중은 2g 내외의 소립종임 • 과립은 원형으로 밀착성이며 과피는 적색임 • 과육은 육질이 연하고 과즙이 많으며 당도는 19° Bx임
샤인 머스켓		• 일본에서 1988년 개발한 품종으로 2006년 한국에서 처음 식재를 시작 • 껍질째 먹으며 씨가 없고, 특유의 망고향 때문에 ‘망고포도’ 라고도 불림 • 당도는 20° Bx로 높으며 과립중은 12~14g으로 큰 편임 • 과육은 크고 단단하며 씨가 없고, 과피는 황록색을 띠 • 저온 보관 시 3개월까지 보관이 가능함
피오네		• 꽃떨이 현상이 심하며 생육특성이 거봉과 비슷하나 잎 뒷면에 솜털이 없어 쉽게 구별됨 • 숙기가 9월 상·중순인 중생종이며 과방중은 400g 정도이고 과립중은 12g 내외인 대립종이며 과립은 난형임 • 거봉에 비해 과피는 검은색이 더 강하며 과육은 단단하고 과피와 과육의 분리가 어려움 • 당도는 17° Bx이고 산미가 적음

* 출처: 농촌진흥청 농사로 농업기술포털>농자재>품종정보(nongsaro.go.kr)

2) 생산동향

가. 생산량 추이

□ 2018년 국내 포도 생산량은 17만 5,399톤으로 전년대비 7.8% 감소함

- 이는 냉해피해로 인해 작황이 나빠진데 기인한 것이며, 2017년 FTA 폐업지원사업으로 많은 농가가 폐업하거나 다른 작물로 전환하면서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음

〈표 I -1-2〉 2009~2018년 국내 포도 생산량 추이

(단위 : 톤)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79,296	257,128	226,590	235,181	219,680	228,971	223,695	229,284	190,265	175,399

* 출처 : 통계청>국가통계포털>국내통계>주제별통계>농림어업(kostat.go.kr)

나. 생산지역 및 면적

□ 포도 재배면적은 매년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

- 2018년 전국의 포도 재배면적은 1만 2,795ha로, 2009년 이후 1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2009년 포도 재배면적은 17,996ha로 2018년까지 연평균 3.7%씩 감소함
- 이는 농가 고령화로 인한 폐원, 포도 수입 증가, 작목전환 등에 기인하며, 2017년에는 FTA 폐업지원사업으로 인해 전년대비 역대 가장 큰 비율(12.3%)로 감소함

〈표 I -1-3〉 2009~2018년 국내 포도 재배면적

(단위: ha)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7,996	17,572	17,445	17,181	16,931	16,348	15,397	14,946	13,107	12,795

* 출처 : 통계청>국가통계포털>국내통계>주제별통계>농림어업(kostat.go.kr)

□ 2018년 기준, 경상북도는 국내 포도 재배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재배지로 나타남

- 경상북도의 2018년 포도 재배면적은 6,769ha로 전체 재배면적의 52.9%를 차지함
- 뒤이어 경기도(1,746ha), 충청북도(1,082ha), 전라북도(995ha) 순임

〈표 I -1-4〉 2018년 지역별 포도 재배면적

(단위 : ha)

순위	지역	재배면적	순위	지역	재배면적	순위	지역	재배면적
	전체	12,795	6	경상남도	304	12	세종특별자치시	58
1	경상북도	6,769	7	전라남도	275	13	광주광역시	25
2	경기도	1,746	8	강원도	254	14	제주도	6
3	충청북도	1,082	9	대전광역시	134	15	울산광역시	3
4	전라북도	995	10	인천광역시	129	16	서울특별시	1
5	충청남도	920	11	대구광역시	91	17	부산광역시	1

* 출처: 통계청>국가통계포털>국내통계>주제별통계>농림어업(kostat.go.kr)

다. 작기 및 출하기

□ 포도 재배방식은 노지재배, 시설재배 등으로 구분되며, 주로 노지에서 재배됨

- 2015년 시설재배 17.6%, 노지재배 82.4%에서 2018년 시설재배 14.5%, 노지재배 85.5%로 전체 면적이 감소하는 동시에 시설재배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음
- 시설재배는 노지재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경영비가 많이 드나, 단경기 출하로 단가가 높음

〈표 I -1-5〉 2015~2018년 포도 작형별 재배면적

(단위: ha, %)

구분	2015	비중	2016	비중	2017	비중	2018	비중
시설	2,707	17.6	2,240	15.0	1,942	14.8	1,857	14.5
노지	12,690	82.4	12,706	85.0	11,147	85.2	10,938	85.5

* 출처: 통계청>국가통계포털>국내통계>주제별통계>농림어업(kostat.go.kr)

□ 시설재배 포도는 3~4월의 발아 및 신초생장기, 5~7월 중순의 개화 및 과립비대기, 7월 하순~8월의 성숙기와 9월~11월 상순의 수확 및 저장양분 축적기를 거침

- 노지재배 포도의 경우 보통 4월 하순에 발아하여 6월 상순에 개화하며, 8월 하순부터 9월 중 수확이 이루어짐

〈표 I -1-6〉 국내 포도 작기 및 출하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발아 및 신초생장기 ○ 개화 및 과립비대기 ▲ 성숙기 □ 수확 및 저장양분 축적기

* 출처: 농촌진흥청 농사로 농업기술포털>영농기술>작목기술정보(nongsaro.go.kr)

□ 숙기별로 출하시기에 차이가 있음

- 캠벨얼리, 텔라웨어 등이 해당하는 조생종의 경우 수확기가 7월 상순에서 8월 하순으로 가장 이르며 MBA 등이 해당하는 만생종의 경우 10월 상순에서 11월 상순으로 가장 늦음
- 샤인머스켓은 만생종에 속하며 출하기는 8월~다음 해 1월임

〈표 I -1-7〉 포도 숙기별 수확기

숙기	품종	재배비율(%)	수확기
조생종	캠벨얼리, 텔라웨어, 홍단, 청수 등	71.5	7월상~8월하
중생종	거봉, 자옥, 대봉, 피오네 등	18.3	9월상~9월하
만생종	MBA, 세리단, 타노레드, 골든퀸 등	10.2	10월상~11월상

* 출처: 농업기술센터(agro.go.kr)

라. 생산규격 및 안전성

□ 국내 유통되는 포도는 크기(무게), 색택, 신선도, 결점과 등에 따라 특, 상, 보통으로 구분됨

- 국내에서 생산된 신선 포도 중 크기(무게) 차이가 적고, 결점 없이 속도가 뛰어난 제품은 특 등급으로 분류됨
 - 특 등급의 경우 품종에 따라 무게 기준에 차이가 있음
 - 뒤이어 크기(무게) 차이가 30% 이하이며 결점이 적고 속도가 양호한 제품은 상 등급, 그 외 특·상 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은 보통 등급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이 중 중결점과는 이품종과, 부패 및 변질과, 미숙과, 병충해과, 상해과, 피해과 등이 있음
 - 경결점과는 품종 고유의 모양이 아닌 것, 낱알의 밀착도가 지나치거나 성긴 것, 병해충의 피해가 경미한 것,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등이 있음

〈표 I -1-8〉 국내 유통되는 포도의 표준규격

등급 항목	특	상	보통
날개의 고르기	하기 크기 구분표(표 I -1-9)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10% 이하인 것	하기 크기 구분표(표 I -1-9)에서 무게가 다른 것이 30% 이하인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무게	캠벨얼리, MBA, 새단 및 이와 유사한 품종: L, M인 것 거봉 및 이와 유사한 품종: M 이상인 것	M 이상인 것	적용하지 않음
색택	품종 고유의 색택을 갖추고, 과분의 부착이 양호한 것	품종 고유의 색택을 갖추고, 과분의 부착이 양호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신선도	날알 간 속도와 크기의 고르기가 뛰어난 것	날알 간 속도와 크기의 고르기가 양호한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중결점과	없는 것	없는 것	부패·변질과를 제외하고 5% 이하인 것
경결점과	없는 것	5% 이하인 것	20% 이하인 것

* 출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 표준규격(www.law.go.kr/행정규칙/농산물표준규격)

- 포도 표준규격의 기준이 되는 크기(무게)는 하기와 같이 구분됨

〈표 I -1-9〉 국내 유통되는 포도 크기 구분

구분		2L	L	M	S
1 송이의 무게(g)	MBA 및 이와 유사한 품종	650 이상	500 이상 650 미만	350 이상 500 미만	350 미만
	거봉, 네오마스캇, 다노레드 및 이와 유사한 품종	500 이상	400 이상 500 미만	300 이상 400 미만	300 미만
	캠벨얼리 및 이와 유사한 품종	450 이상	350 이상 450 미만	300 이상 350 미만	300 미만
	새단 및 이와 유사한 품종	300 이상	250 이상 300 미만	200 이상 250 미만	200 미만
	텔라웨어 및 이와 유사한 품종	150 이상	120 이상 150 미만	100 이상 120 미만	100 미만

* 출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 표준규격(www.law.go.kr/행정규칙/농산물표준규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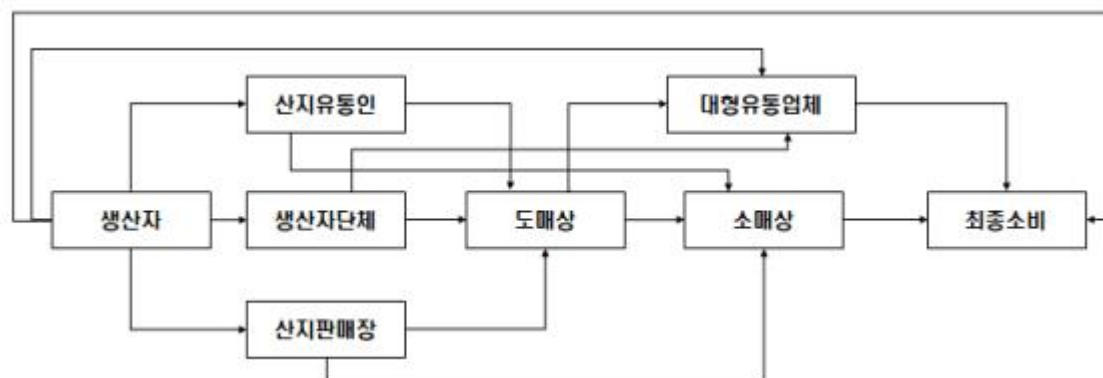
2. 유통현황

1) 유통구조

□ 국내에서 포도는 대표적으로 ‘생산자 → 생산자단체 → 도매상 → 소매상 → 소비자’의 경로를 거쳐 유통됨

- 주요 출하처는 생산자단체로 전체 유통 물량의 약 60%를 차지하며, 이는 다시 도매상과 소매상을 거쳐 최종 소비자에게로 연결됨
- 대형 유통업체의 점유율은 44%로, 최근 대형 유통업체의 도매시장 구매 비율은 감소하고, 산지로부터 구매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임
 - 대형 유통업체를 통한 유통경로에서는 소비자의 수요가 바로 시장에 반영되는 것이 특징임
- 최근에는 온라인 및 지인을 통한 직접 판매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 부산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따르면, 포도의 주요 출하지역은 영천, 경산, 김천 등임

〈그림 I -2-1〉 국내 포도 유통경로



* 출처: 농촌진흥청 농사로 농업기술포털>농식품산업동향(nongsaro.go.kr)

2) 도·소매가격

□ 샤인머스켓을 제외하고 2018년 도매가격이 가장 높은 품종은 거봉으로, 상품(上品) 기준 kg당 7,142원으로 집계됨

- 거봉은 2015년부터 도매가격이 증가하여 2018년 전년대비 약 13% 상승하였으며, 최근 6개년 평균 도매가격은 상품 4,543원/kg, 중품 3,516원/kg으로 집계됨

- 캠벨얼리의 kg 당 도매가격이 4,608원으로 뒤를 이었으며, 수입산 4,323원, MBA 3,788원 순임
- 캠벨얼리(상품 및 중품)의 도매가격은 2014년까지 하락세를 보이다가 반등하여 최근 4년간 성장하고 있음
 - 캠벨얼리 상품의 최근 6년 평균 도매가격은 kg 당 3,971원, 중품 3,213원으로 나타남
- 수입산 상품 포도는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가격이 하락하다가 2016년 이후 소폭 증가하는 추이를 보임
 - 중품의 도매가격은 2013년 이후 증감을 반복하며 하락하는 양상을 보임
- MBA의 경우 상품과 중품 모두 2014년부터 도매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며, 평년 도매가격은 각각 2,592원/kg, 2,070원/kg으로 나타남
- 모든 품종과 등급에서 2018년 도매가격이 전년대비 상승하였으며, 이는 생산량 감소로 인한 도매반입량 감소에 기인함

〈표 1 -2-1〉 2013~2018년 품종별 포도 평균 도매가격 추이

(단위: 원/kg)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평년
상품	캠벨얼리	3,902	3,389	3,590	3,904	4,434	4,608	3,971
	거봉	5,917	4,980	4,831	5,210	6,318	7,142	4,543
	MBA	3,631	2,432	2,548	3,381	3,561	3,788	2,592
	수입	4,805	4,624	4,031	4,074	4,092	4,323	3,605
중품	캠벨얼리	3,174	2,694	2,898	3,067	3,662	3,784	3,213
	거봉	4,592	3,902	3,815	4,203	4,580	5,627	3,516
	MBA	3,063	1,894	1,986	2,704	2,771	3,131	2,070
	수입	5,378	4,085	3,491	3,582	3,559	3,629	3,349

* 출처: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www.kamis.or.kr)

□ 샤인머스켓의 2018년 평균 도매가격은 kg당 1만 3,003원으로 국내에서 유통되는 포도 품종 중 가장 고가에 판매됨

- 샤인머스켓의 출하기인 7월~1월 내내 높은 가격을 유지하며, 특히 11~12월의 도매가격이 약 16,000원/kg으로 가장 높음

〈표 1 -2-2〉 2018년 샤인머스켓 품종 월별 평균 도매가격 추이(상품)

(단위: 원/kg)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3,023	-	-	-	-	-	12,376	11,618	10,249	11,356	16,091	16,309

* 출처: 서울시농수산물공사(www.garak.co.kr)

□ 샤인머스켓을 제외하고 2018년 소매가격이 가장 높은 품종은 거봉으로, 상품 8,006원/kg, 중품 6,932원/kg으로 집계됨

- 뒤이어 상품의 경우 캠벨얼리 6,819원/kg, MBA 5,636원/kg 순으로 나타났으며, 수입산 포도 상품의 소매가격은 집계되지 않음
- 중품의 경우 수입산 포도 6,335원/kg, 캠벨얼리 6,030원/kg, MBA 4,916원/kg 순임
- 수입산 포도를 제외한 모든 품종의 소매가격이 전년대비 상승함

〈표 I -2-3〉 2013~2018년 품종별 포도 평균 소매가격 추이

(단위: 원/kg)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평년
상품	캠벨얼리	5,769	4,339	4,872	5,060	5,633	6,819	5,415
	거봉	7,532	5,743	5,729	6,080	6,719	8,006	6,634
	MBA	5,063	3,717	3,639	4,378	4,647	5,636	4,513
	수입	-	-	-	-	-	-	-
중품	캠벨얼리	4,871	3,910	4,089	4,319	5,055	6,030	4,712
	거봉	6,632	4,980	4,948	5,136	5,789	6,932	5,736
	MBA	4,325	3,244	3,302	3,432	4,185	4,916	3,900
	수입	7,952	7,197	6,537	6,618	6,414	6,335	6,842

* 출처: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www.kamis.or.kr)

3. 소비현황

□ 2005년 이후 국내 1인당 연간 포도 소비량은 감소하는 양상을 보임

- 2018년 1인당 소비량은 4.3kg로 추정됨
- 이는 2005년에 비해 47.6% 감소한 수준으로, 2005년부터 2018년까지 1인당 연간 포도 소비량은 연평균 약 4.8%씩 감소함

〈표 1 -3-1〉 포도 1인당 연간 소비량 추이

(단위: kg)

2005	2010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8.2	6.9	6.3	6.5	5.7	5.4	4.7	4.3

* 출처: KASS 국가 농식품통계 서비스, 농업관측본부 추정치(2018)

□ 국내 소비자의 포도의 연평균 구입액은 2만 7,508원 수준이며, 재래시장에서의 구입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포도 구입액 및 빈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연평균 구입액은 2만 7,508원이며 1회 평균 구입액은 6,345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국내 포도는 주로 재래시장을 통해 구입되는 것으로 조사됨
 - 구입액 비중을 기준으로 가장 많이 구매되는 구입처는 재래시장(23.25%)이며, 무점포판매형(19.99%)과 함께 평균 구입액 1만 1,894원으로 전체 구입액의 43.24% 비중을 차지함
 - 뒤이어 소형슈퍼마켓(18.26%), 기업형 슈퍼마켓(16.15%), 대형마트(8.46%) 순으로 구입액 분포를 보임
 - 1회 평균 구입액은 무점포판매형이 1만 4,762원으로 가장 높았고, 대형마트(9,734원), 전문점(7,169원), 백화점(6,461원) 순으로 높은 분포를 보임

〈표 1 -3-2〉 2010~2016년 연평균 국내 포도 구입처별 구입액 분포

(단위 : 원, 회, %)

구분	구입액		구매빈도		1회 평균 구입액(원)	구매가구 비율(%)
	금액(원)	비중(%)	회	비중(%)		
합계	27,508	100.00	4.34	100.00	6,345	98.90
기업형 슈퍼마켓	4,442	16.15	0.94	21.68	4,725	82.36
기타	1,807	6.57	0.19	4.28	9,734	45.67
대형마트	2,327	8.46	0.45	10.33	5,198	62.68
무점포판매형	5,500	19.99	0.37	8.59	14,762	53.39
백화점	219	0.80	0.03	0.78	6,461	9.13
소형슈퍼마켓	5,024	18.26	1.04	23.90	4,848	87.56
재래시장	6,394	23.25	1.07	24.66	5,981	72.91
전문점	1,795	6.53	0.25	5.78	7,169	42.20

* 출처: 농촌진흥청 농사로 농업기술포털>농업경영>농축산물가격(nongsaro.go.kr)

□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특화작물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포도 생산량의 85% 이상은 생식용이며 가공용 소비는 10% 정도임

- 포도를 가공하여 만드는 식품에는 포도즙, 포도주스, 포도주, 포도잼, 포도 식초 등이 있음
- 국산 품종 ‘청수’는 화이트와인 가공에 쓰이는 대표적 양조용 품종임

□ 샤인머스켓 품종에 대한 선호가 늘고 판매량이 급증함

- 샤인머스켓은 다른 품종에 비해 가격이 높지만 당도가 높아 맛이 좋고, 씨가 없으면서 껍질째 먹을 수 있어 먹기 편리하기 때문에 인기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특히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유행하였으며, ‘망고포도’라는 명칭으로 인기를 끄
- 농업관측본부 소비자패널 조사결과¹⁾에 따르면 샤인머스켓에 대한 인지도는 63%이며, 이는 전년대비 25% 증가한 수치임
- 샤인머스켓 구입 경험 또한 12% 상승하여 40%를 기록하였으며 그 중 80%가 맛에 만족한다고 응답함

1) 57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2018.12.27.)

4. 수출현황

1) 포도 수출현황

□ 2018년 한국산 포도는 전년대비 4.7% 감소한 약 1,275톤이 수출됨

- 동년 수출 상위 3개국으로의 수출물량은 전체 수출물량의 65.1%를 차지함
 - 2018년 베트남으로 약 329톤(25.8%)의 포도가 수출되어, 가장 많은 물량이 수출됨
 - 뒤이어 홍콩(314톤, 24.6%), 싱가포르(187톤, 14.7%) 순으로 국산 포도가 수출되고 있음
- 2015년 한·중 간 포도 검역 협상 타결로 시작된 對중국 수출이 2018년 기준 전년대비 1,187%의 큰 폭으로 증가함
 - 초기에는 캠벨얼리와 거봉을 중심으로 수출하였으나 품질이 유사한 중국산 포도에 비해 가격이 높아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음
 - 그러나 중국 내에서 샤인머스켓 품종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였고, 이에 따라 샤인머스켓이 2018년 對중국 포도 수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면서 수출량 증가를 견인함
- 최근 3년간 베트남으로의 수출 성장률이 76.7%로 가장 크게 나타나며, 뒤이어 중국(61.0%), 캐나다(49.4%) 순으로 나타남

〈표 I -4-1〉 2009~2018년 한국 포도 수출현황

(단위: 톤)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 세계	606	471	323	345	430	583	813	1,032	1,218	1,275
1 베트남	14	11	13	9	19	47	36	106	233	330
2 홍콩	92	50	50	70	40	59	102	222	269	314
3 싱가포르	85	73	71	76	133	140	173	178	225	187
4 미국	311	225	127	117	153	226	262	234	185	129
5 중국	-	-	4(kg)	-	-	-	47	37	7	96

*주: HS Code 0806.10(신선포도) 기준

*출처: GTA(Global Trade Atlas)

□ 주로 수출되는 국산 포도 품종에는 캠벨얼리와 거봉이 있으며, 최근에는 샤인머스켓의 생산 확대 및 수출 지원으로 국산 포도 수출을 확대하고 있음

- 한국산 샤인머스켓은 특유의 달콤한 향과 고품질로 해외 소비자들의 선호가 높음
- 또한 과육이 단단하여 보관기간이 일반 포도에 비해 길어 저장성이 우수해 수출 품종으로 적합하다고 평가받음

□ 한국산 포도는 5월부터 수출이 시작되어 익년 2월까지 진행됨

- 포도의 주출하시기인 8월부터 10월까지 수출물량이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9월의 수출이 최대물량을 기록함

〈표 I -4-2〉 2018년 한국 포도 월별 수출추이

(단위: 톤)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 세계	13.0	11(kg)	-	-	6.0	33.6	120.3	173.3	427.4	215.0	188.9	97.3
1 베트남	9.1	-	-	-	1.4	9.4	34.9	30.7	86.3	65.8	54.0	37.6
2 홍콩	3.8	-	-	-	2.5	9.5	23.8	41.2	78.4	62.2	75.5	17.4
3 싱가포르	-	-	-	-	1.1	8.7	44.5	24.3	62.4	38.0	5.2	2.8
4 미국	-	-	-	-	-	-	40(kg)	16.6	89.0	23.1	40(kg)	-
5 중국	-	-	-	-	-	-	-	0.4	8.2	6.1	43.4	37.8

*주: HS Code 0806.10(신선포도) 기준

*출처: ITC Trademap(www.trademap.org)

□ 2018년 한국산 포도의 수출단가는 평균 10.9달러(한화 약 1만 2,971원)/kg으로 집계됨

- 중국으로의 수출단가가 kg당 16.9달러(한화 약 2만 111원)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임
- 뒤이어 베트남 13.3달러(한화 약 1만 5,827원)/kg, 홍콩 12.9달러(한화 약 1만 5,351원)/kg 순임

〈표 I -4-3〉 2009~2018년 한국 포도 수출단가

(단위: 달러/kg)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 세계	3.4	4.0	4.1	4.0	4.0	3.9	4.0	5.0	7.0	10.9
1 베트남	2.4	3.3	4.6	3.7	3.2	3.2	4.5	5.7	9.7	13.3
2 홍콩	2.7	6.0	4.7	4.2	5.8	5.7	5.3	6.2	8.6	12.9
3 싱가포르	4.4	4.1	3.5	3.6	3.1	3.1	3.8	4.8	6.3	8.3
4 미국	3.3	3.6	4.0	3.9	3.8	3.6	3.3	3.4	3.4	4.4
5 중국	-	-	1.3	-	-	-	3.3	4.2	11.0	16.9

*주: HS Code 0806.10(신선포도) 기준

*출처: GTA(Global Trade Atlas)

□ 2019년 주요 수출포도의 평균 수출단가는 kg당 9.91달러(한화 약 1만 1,793원)로 집계됨²⁾

- 이 중 샤인머스켓의 평균 수출단가가 kg당 18.1달러(한화 약 2만 1,539원)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임
 - 2019년 기준 한국산 샤인머스켓은 7월 kg당 20.1달러(한화 약 2만 3,919원)로 가장 높은 수준에 수출되었으며, 8월 18.8달러(한화 약 2만 2,372원), 9월 17.3달러(한화 약 2만 587원), 10월 16.3달러(한화 약 1만 9,397원)로 감소세를 보임
- 거봉의 평균 수출단가는 kg당 6.9달러(한화 약 8,211원)로 집계됨
 - 거봉 역시 7월의 수출단가가 7.4달러(한화 약 8,806원)/kg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8월의 수출단가는 kg당 7.0달러(한화 약 8,330원), 9월 6.8달러(한화 약 8,092원), 10월 6.4달러(한화 약 7,616원)로 나타남
- 캠벨얼리의 경우 kg당 평균 3.2달러(한화 약 3,808원)로, 주요 포도 수출품종 중 가장 저가에 수출되고 있음
 - 캠벨얼리는 9월의 수출단가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7월 kg당 4.7달러(한화 약 5,593원)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8월 5.2달러(한화 약 6,188원), 9월 6.2달러(한화 약 7,378원)를 기록한 뒤 10월 4.9달러(한화 약 5,831원)로 다시 하락하는 양상을 보임

〈표 I -4-4〉 2019년 한국산 주요 수출품종의 수출단가

(단위: 달러/kg)

구분	7월	8월	9월	10월	평균
샤인머스켓	20.1	18.8	17.3	16.3	18.1
거봉	7.4	7.0	6.8	6.4	6.9
캠벨얼리	4.7	5.2	6.2	4.9	3.2

* 출처: 한국포도수출연합회

2) 2019년 7월부터 10월까지 주요 수출품종(샤인, 거봉, 캠벨)의 수출실적을 바탕으로 산출한 결과임. 한국포도수출연합회

2) 對홍콩 수출추이

□ 對홍콩 포도 수출은 2014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2018년 수출량은 314톤으로 2014년 59톤에서 5년 동안 연평균 51.8% 증가함
- 이는 최근 한국산 포도의 안전성이 인정받고 이와 더불어 고품질의 샤인머스켓이 현지에서 인기를 끌며 홍콩으로의 수출이 급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표 I -4-4〉 2009~2018년 포도 對홍콩 수출현황

(단위 : kg)				
2009	2010	2011	2012	2013
92,338	49,654	49,968	69,825	40,343
2014	2015	2016	2017	2018
59,148	102,030	222,085	269,039	314,152

* 주 : HS Code 0806.10 기준

* 출처 : ITC Trademap(www.trademap.org)

□ 2018년 한국산 포도의 對홍콩 수출단가는 kg당 12.9달러(한화 약 1만 5,351원)로 집계됨

〈표 I -4-5〉 2009~2018년 對홍콩 수출단가 변동추이

(단위 : 달러/kg)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對세계	3.4	4.0	4.1	4.0	4.0	3.9	4.0	5.0	7.0	10.9
對홍콩	2.7	6.0	4.7	4.2	5.8	5.7	5.3	6.2	8.6	12.9

* 주 : HS Code 0806.10 기준

* 출처 : ITC Trademap(www.trademap.org)

□ 2018년 월별 수출액을 기준으로 9월부터 11월까지의 수출규모가 가장 높게 나타남

-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對홍콩 수출액은 287만 3,000달러(한화 약 35억 133만 원)로 집계됨
- 2018년 한 해 수출액의 70.82%가 해당 시기에 발생되었는데, 이는 한국산 포도의 주출하시기가 9월부터 11월까지이기 때문임

〈표 I -4-6〉 2018년 월별 포도 수출추이

(단위 : 천 달러,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對홍콩 수출액	47	-	-	-	39	103	236	496	901	860	1,112	263
월별 비중	1.16	-	-	-	0.96	2.54	5.82	12.23	22.21	21.20	27.41	6.48

* 주 : HS Code 0806.10 기준

* 출처 : ITC Trademap(www.trademap.org)

☐ 對香港 신선 포도 수출 시에는 기본세율이 적용되어 무관세 수출이 가능함

〈표 I -4-7〉 2018년 홍콩 포도 관세율표

HS Code	품명	세율
		기본
0806.10-00	포도(신선한 것)	0%

* 출처 : 관세법령정보포털(<https://unipass.customs.go.kr/>)

II. 홍콩 시장현황

1. 생산현황

□ 홍콩은 토지제약과 기후적 요인으로 포도를 생산하지 않음

- 홍콩 타이베이 무역센터에 따르면 홍콩의 과일시장은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함
- 위안랑(Yuen Long) 지역의 과수원에서 포도를 재배하고 있기는 하지만 규모가 극히 미미함
 -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품종은 샤인머스켓으로, 2017년 처음으로 약 1,500그루에서 1,000근(600kg)의 포도를 수확한 것으로 나타남
 - 2016년 처음으로 기술을 도입하여 8만 제곱피트의 면적에 재배를 시도하였음
 - 햇빛, 비와 온도 등 홍콩 기후가 포도 생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방우막을 개조하여 열 방출을 용이하게 하고, 햇빛과 비를 차단하는 등 국내 기후에 맞는 재배방식을 개발하기 위해 기술적 노력을 하고 있음
 - 위안랑 지역에서 생산되는 포도의 수확기는 9월~1월임

<표 II-1-1> 홍콩에서 생산되는 샤인머스켓 특징



- 과피는 아삭한 식감을 가지고 있으며 과육은 크고 부드러움
- 일본산 샤인머스켓에 비해 연한 황록색을 띄며 크기가 약간 작음
- 당도는 20° Bx 수준임

* 출처: 홍콩포털 신가기新假期(www.weekendhk.com)

<그림 II-1-1> 홍콩 포도 재배시설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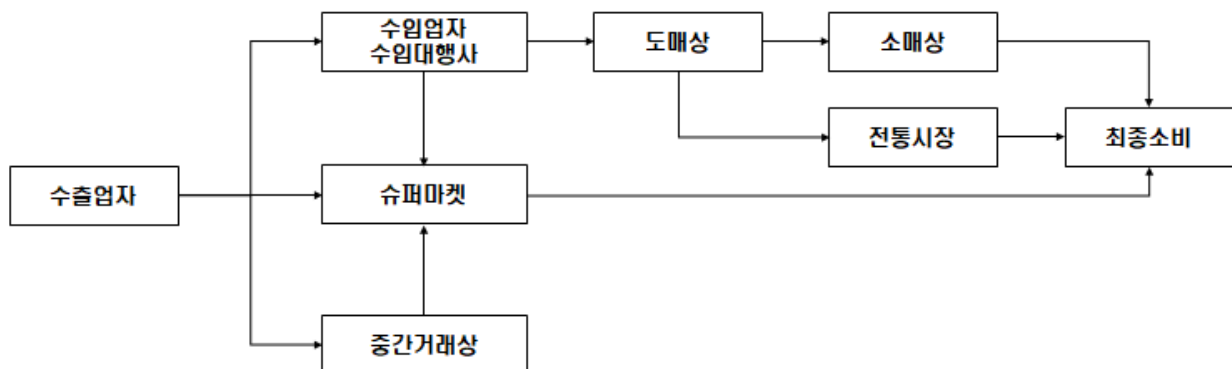
* 출처: 홍콩포털 신가기新假期(www.weekendhk.com)

2. 유통현황

1) 유통구조

- 홍콩으로 식품이 수입되어 유통되는 경로는 ‘수입업체 → 도매시장 → 재래시장 및 편의점 → 최종 소비자’와 ‘수출업체 및 수입업체 → 슈퍼마켓 체인 → 최종 소비자’로 나뉨
- 야우마테이(Yau Ma Tei) 도매시장은 홍콩의 중심적인 과일 도매시장임
 - 2018년 기준 약 240개의 도매상들이 등록되어 있음
 - 도매상들은 신선 과일을 해외에서 직접 수입해오거나 수입업체를 통해 상품을 가져와 판매함
 - 이 외에도 서부도매식품시장 등 AFCD(Agriculture, Fisheries and Conservation Department, 홍콩 농수산업 및 보존과)에 의해 관리되는 정부 도매시장이 있음
 - AFCD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서부도매식품시장에서 90,873톤의 과일이 유통됨
 - 슈퍼마켓체인의 경우 도매시장을 통하지 않고 수입된 신선 과일을 직접 유통함
 - 웰컴(Wellcome)과 파크앤샵(ParknShop)은 홍콩 식료품 시장에서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슈퍼마켓 체인임
 - 2017년 발행된 미국 농무부(USDA)의 보고서에 따르면 두 슈퍼마켓 체인은 소매 식료품 판매의 약 75%를 차지함

〈그림 II-2-1〉 홍콩 내 수입 식품 유통경로



*출처 : 미국 농무부(USDA)(<https://www.usda.gov/>)

2) 제품분석

□ 7개의 식품소매채널에서 판매되는 샤인머스켓 중 일본산이 13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보였으며, 뒤이어 한국산 3개, 중국산 1개로 확인됨

- 일본산 샤인머스켓은 주로 오카야마현산(4개)이었으며, 이 외에도 나가노현산(3개), 야마나시현산(1개)이 판매되고 있음
 - 한국산의 경우 2개의 상품이 경상북도산으로 확인되었으며, 원산지는 한국어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영문이나 중문으로 표기되어있지는 않음
- 일본산 샤인머스켓이 개당 186.8HKD(한화 약 2만 8,107원)로 가장 고가에 판매됨
 - 한국산 샤인머스켓의 평균가격³⁾은 151.3HKD(한화 약 2만 2,766원)로 확인되며, 중국산은 100.0HKD(한화 약 1만 5,047원)으로 조사됨
- 유통채널별 샤인머스켓의 소비자가격은 고급식료품점 > 슈퍼마켓 > 재래시장 > 대형마트 순으로 고가에 판매됨
 - 고급식료품점에서는 송이당 평균 208.7HKD(한화 약 3만 1,403원)⁴⁾에 샤인머스켓이 판매됨
 - 뒤이어 슈퍼마켓 188.0HKD(한화 약 2만 8,288원), 재래시장 142.0HKD(한화 약 2만 1,399원), 대형마트 139.0HKD(한화 약 2만 915원)에 판매되고 있음
- 고급식료품점, 대형마트, 슈퍼마켓에서 판매되는 샤인머스켓은 플라스틱 비닐 포장 혹은 팩 포장으로 판매되고 있음
 - 2개의 한국산 상품은 난좌망과 종이바스켓 포장을 더해 강화한 것으로 조사됨
 - 고급식료품점에서 판매되는 일본산(오카야마현) 제품은 1개의 상품 당 1개의 포장 박스를 제공하고 있음
 - 반면, 재래시장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경우 플라스틱 비닐에 담기거나 특별한 포장이 없는 경우가 많음
- 홍콩 내 판매되는 일본산 샤인머스켓은 주로 산지(지역명)를 중문으로 포장에 명시하는 방법으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음
 - 고급식료품점(Yata) 내 한국산 샤인머스켓은 별도의 매대를 구성하여 판매되고 있으며 ‘Korean Premium Shine Muscat’ 을 명시하여 프리미엄 상품임을 강조하는 홍보를 진행함
 - 중국산 샤인머스켓은 별도의 마케팅 및 홍보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3) 평균가격은 1팩(1송이) 기준으로 산정함

4) 환율기준 : 1.00HKD = 148.68원(2019.11.12.)

사진		
품명	샤인머스켓	샤인머스켓
원산지	일본산(야마나시현)	일본산
판매처	Great Food Hall(고급식료품점)	Great Food Hall(고급식료품점)
가격	249HKD/1팩	199HKD/1팩
사진		
품명	샤인머스켓	샤인머스켓
원산지	일본산	일본산
판매처	Yata(고급식료품점)	Yata(고급식료품점)
가격	89HKD/1팩	128HKD/1팩
사진		
품명	샤인머스켓	샤인머스켓
원산지	한국산	한국산
판매처	Market Place by Jasons(고급식료품점)	Market Place by Jasons(고급식료품점)
가격	138HKD/1팩	138HKD/1팩

사진		
품명 원산지 판매처 가격	샤인머스켓 일본산(오카야마현) 야우마테이(재래시장) 250HKD/1송이	샤인머스켓 일본산 야우마테이(재래시장) 180HKD/2송이
사진		
품명 원산지 판매처 가격	샤인머스켓 일본(오카야마현) AEON(대형마트) 139HKD/1팩	샤인머스켓 중국산 청과물 전문판매점(기타) 100HKD
사진		
품명 원산지 판매처 가격	샤인머스켓 한국산 Taste(슈퍼마켓) 178HKD/1팩	샤인머스켓 일본산 Taste(슈퍼마켓) 198HKD/1팩

사진			
	품명	샤인머스켓	샤인머스켓
	원산지	한국산	일본산(오카야마현)
	판매처	Yata(고급식료품점)	Yata(고급식료품점)
	가격	138HKD/1팩	538HKD/1팩
사진			
	품명	샤인머스켓	샤인머스켓
	원산지	일본산(나가노현)	일본산(나가노현)
	판매처	야우마테이(재래시장)	야우마테이(재래시장)
	가격	160HKD/1송이	130HKD/1송이
	가격		80HKD/1송이

□ 홍콩 시장 내 유통되는 샤인머스켓은 한국산, 중국산, 일본산으로, 3개 국가의 상품에 대한 관능검사를 진행함

- 과실의 당도는 일본산이 가장 높으며, 한국산과 중국산은 동일한 당도를 보임
 - 일본산 중품의 당도가 최상부 23 °Bx, 최하부 22 °Bx로 수준으로 조사되며, 일본산 상품은 최상부 22 °Bx, 최하부 17 °Bx로 나타남
 - 한국산과 중국산의 경우, 최상부와 최하부의 과실의 당도가 각각 15 °Bx, 14 °Bx 수준으로 일본산에 비해 낮게 조사됨
 - 두 원산지 샤인머스켓의 최상부와 최하부의 당도차이는 1 °Bx 밖에 나지 않으며, 일본산에 비해 차이가 크지 않음
- 과실의 무게는 한국산이 최상부 20g, 최하부 18g으로 가장 높았으며, 일본산 중품의 무게가 최상부 8g, 최하부 7g으로 가장 낮았음
 - 일본산의 경우, 샤인머스켓 사이즈를 작고 당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재배하여 과실 자체밀도를 높임
 - 반면 한국산과 중국산은 과실의 크기를 키우는 방식으로 재배하기 때문에 비교적 사이즈는 크지만 당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

사진				
				
품종	샤인머스켓	샤인머스켓	샤인머스켓	샤인머스켓
원산지	한국산	중국산	일본산(상)	일본산(중)
구매처	Yata	재래시장	Yata	Yata
당도	최상부: 15 °Bx 최하부: 14 °Bx	최상부: 15 °Bx 최하부: 14 °Bx	최상부: 22 °Bx 최하부: 17 °Bx	최상부: 23 °Bx 최하부: 22 °Bx
무게	최상부: 20g 최하부: 18g	최상부: 17g 아래: 9g	최상부: 18g 최하부: 14g	최상부: 8g 최하부: 7g

□ 현지 업체 전문가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한국산 샤인머스켓은 프리미엄인 일본산과 저가의 대만 및 중국산 사이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남⁵⁾

- 홍콩 시장에서 한국산 샤인머스켓은 고품질이지만 합리적인 가격대에 판매되는 상품으로 인식됨⁶⁾
 - 그러나 일본산에 비해 품질이 낮다고 인식되고 있는데, 일본산 샤인머스켓은 모두 과실에서 은은한 꽃 향이 나며 품질이 균등한 반면, 한국산의 경우 품질이 제각각 달라 상품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⁷⁾
 - 한국산 샤인머스켓도 고급 상품으로 인식되고는 있지만 일본산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며,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균질한 품질보장과 함께 포장디자인의 개선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됨⁸⁾
- 최근 지리적 이점을 살려 가격경쟁력을 갖춘 중국산 샤인머스켓의 물량이 대폭 확대되는 추세임⁹⁾
 - 중국산 샤인머스켓은 크기가 고르지 못하고 상품의 품질은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가격이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¹⁰⁾
 - 또한 고급스러운 포장으로 소비자들이 일본산으로 오인하도록 만들어 제품의 구매를 유도하기도 함
 - 일부 중국산 상품은 포장에 의도적으로 일본어를 기재하여 원산지를 오인하도록 하고 있음

5) 현지 수입업체 Good view fruits 담당자 인터뷰 결과(2019.11.05)

6) 현지 수입업체 Chan Man Chau 담당자 인터뷰 결과(2019.11.05)

7) 현지 수입업체 Topweal 담당자 인터뷰 결과(2019.11.06)

8) 현지 수입업체 P&C International 담당자 인터뷰 결과(2019.11.07)

9) 현지 수입업체 Freco 담당자 인터뷰 결과(2019.11.06)

10) 현지 수입업체 Chan Man Chau 담당자 인터뷰 결과(2019.11.05)

3. 소비현황

□ 2018년 홍콩의 포도 총 국내 소비량은 5만 5,000톤으로 집계됨

- 2016년 포도 소비가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나 그 이후 다시 회복하는 추세로 최근 9년간 가장 많은 소비량을 보임

〈표 II -3-1〉 2010~2018년 홍콩 포도 총 국내 소비량

(단위: 톤,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총 소비량	34,100	39,100	38,800	46,800	42,600	42,100	16,800	36,500	55,000
증감률	3.65	14.66	△0.77	20.62	△8.97	△1.17	△60.10	117.26	50.68

* 출처 : 미국 농무부(USDA)(<https://www.usda.gov/>)

- 2010년 홍콩 식품위생국의 ‘총 식이조사(Total Diet Study)’의 식품소비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1인당 일일 포도 소비량은 4.13g으로 나타남
- 동 조사 결과 오렌지의 1인당 일일 소비량이 55.51g, 사과 21.46g인 것과 비교하여 홍콩 소비자들의 포도 소비는 적은 편에 속함

□ 2018년 홍콩 소비자 350명을 대상으로 포도 선호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격(31%)과 맛(당도)(29.1%)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드러남¹¹⁾

- 다음으로 안전성(14.1%), 품종(13.7%), 원산지(11.6%), 기타(0.4%) 순임
- 구입빈도는 1개월에 2~3회가 30.3%로, 1회 구입량은 2송이가 40.3%로 가장 많이 분포함
- 구입시기에 관하여는 계절과 무관하게 구입한다(72.9%)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주로 일반 중소형마트(53.7%)나 재래시장(32.9%)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드러남
- 한국산 포도에 대한 인지도는 70%로 높은 편이며 69%가 한국산 포도를 구입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 구입 경험이 없는 이유로는 △가격이 비싸서 △먹어본 적이 없어서 △브랜드를 잘 몰라서 △찾기 어려워서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미국 농무부(USDA)의 조사에 따르면 2017년 호주의 사파이어 포도가 인기를 끌었으며, 최근 온라인을 통해 미리 주문하고 택배로 포도를 받는 구입 형태가 늘고 있음

11) 홍콩 싱가포르 소비자의 포도 선호도 분석을 통한 수출전략, 박미성 외, 농업경영 정책연구 제 46권 제 1호

4. 수입현황

1) 홍콩 포도 수입현황

□ 2018년 홍콩의 포도 수입물량은 23만 7,920톤으로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을 보임

- 홍콩의 주요 포도 수입국은 칠레, 호주, 페루로, 해당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전체 수입물량의 78.5%를 차지함
 - 칠레산 포도 수입물량은 10만 7,258톤으로 전체 수입의 45.1%를 차지함
 - 호주산 포도 수입은 전체의 18.7%를 차지하는 4만 4,411톤으로 집계되었으며, 페루산은 3만 5,056톤으로 전체 수입물량의 14.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산 포도의 수입물량은 426톤으로 전체 수입물량의 0.2%를 차지함
 - 수입 비중은 미미하나 2015년 이후 수입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산 샤인머스켓의 수요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남

〈표 II-4-1〉 2009~2018년 홍콩 포도 수입물량

(단위: 톤)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 세계	128,013	114,573	143,164	156,471	167,224	195,548	206,304	236,493	236,729	237,920
1 칠레	49,545	36,833	61,762	60,853	67,182	65,608	69,203	100,284	83,140	107,258
2 호주	26,621	8,019	10,368	16,828	24,149	29,519	32,315	44,529	51,642	44,411
3 페루	7,760	11,270	14,107	17,462	17,101	41,402	52,805	42,332	41,055	35,056
4 미국	33,394	41,444	35,158	32,179	45,530	42,469	30,943	29,842	28,711	23,651
5 남아프리카	8,661	13,614	17,019	23,754	9,566	12,539	17,592	14,793	23,542	14,858
12 한국	67	104	50	72	60	98	117	288	404	426

*주: HS Code 0806.10(신선포도) 기준

*출처: GTA(Global Trade Atlas)

□ 홍콩의 포도 수입단가는 kg당 2.1달러(한화 약 2,499원)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남

- 전체 수입의 약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칠레산 포도의 수입단가는 1.8달러(한화 약 2,142원)/kg로 평균 수입단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통되고 있음
- 호주산 포도의 수입단가는 2.2달러(한화 약 2,618원), 페루산 1.8달러(한화 약 2,142원)로 집계됨
- 반면 한국산 포도의 수입단가는 kg당 9.7달러(한화 약 1만 1,543원)로 주요 수입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유통되고 있음
 - 한국산 포도 수입단가는 샤인머스켓이 본격적으로 수출되기 시작한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표 II -4-2〉 2009~2018년 홍콩 포도 수입단가

(단위: 달러/kg)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 세계	2.0	2.2	2.2	2.4	2.4	2.3	2.1	1.9	2.1	2.1
칠레	1.7	1.9	1.9	1.9	2.1	1.9	1.8	1.8	1.8	1.8
호주	2.2	2.5	2.4	2.5	2.5	2.7	2.2	2.1	2.2	2.2
페루	2.2	2.4	2.5	2.7	2.5	2.2	2.0	1.7	1.9	1.8
미국	2.3	2.3	2.6	2.9	2.8	2.9	2.8	2.2	2.4	2.3
남아프리카	1.7	2.0	2.1	2.4	2.5	2.3	2.0	2.1	2.1	2.2
한국	2.4	3.7	4.7	3.4	3.6	3.1	3.6	5.6	6.5	9.7

*주: HS Code 0806.10(신선포도) 기준

*출처: ITC Trademap(www.trademap.org)

□ 홍콩의 포도 수입은 연중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12월부터 익년 3월까지 물량이 집중되어 있음

- 수입물량이 가장 많은 칠레산 포도는 3월부터 5월까지 집중적으로 유통됨
 - 6월부터 8월까지, 10월과 12월 매우 소량이 수입되기도 함
- 호주산 포도는 1월부터 4월까지 가장 많은 물량이 수입되며, 5월부터 수입량이 감소하기 시작함
 - 이 외에 4월과 9~10월, 12월에 10톤 내외의 소량의 물량이 수입되고 있음
- 페루산은 10월부터 수입이 시작되어 익년 4월까지 진행됨
 - 10월부터 1,000톤 이상의 많은 물량이 수입되기 시작해 12월에 약 12만 톤가량이 수입되었으며, 익년 1월까지 10만 톤 이상의 물량이 수입된 이후 감소하는 양상을 보임
- 한국산 포도는 5월부터 소량씩 수입되기 시작해 9월부터 11월까지 최대물량이 수입된 이후 감소하기 시작함
 - 한국산 포도 저장물량이 감소하는 2월부터는 수입량이 집계되지 않음

〈표 II -4-3〉 2018년 홍콩 포도 월별 수입물량

(단위: 톤)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 세계	16,103	8,942	6,916	3,707	1,075	262	715	2,766	3,767	6,550	8,576	14,138
1 칠레	-	20	185	590	264	79	-	-	-	-	-	-
2 호주	931	1,549	3,226	2,215	611	-	-	-	-	16	-	-
3 페루	11,289	4,995	561	16	-	-	-	-	-	1,312	2,574	12,779
4 미국	326	20	64	88	23	99	647	2,630	3,611	5,062	5,787	435
5 남아공	3,511	2,189	2,764	654	-	-	-	-	-	-	73	827
12 한국	4	-	-	-	2	9	24	41	78	62	75	17

*주: HS Code 0806.10(신선포도) 기준

*출처: ITC Trademap(www.trademap.org)

□ 홍콩은 수입된 포도의 대부분을 다른 국가로 재수출함

- 2017년을 기준으로 포도 수입량의 85%를 재수출하였으며 최근 5년간 총 수입량의 80% 내외로 꾸준히 재수출함
- 이는 홍콩 수입 시 무관세의 이점을 살려 물량이 타국가로 유통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주요 재수출국은 중국 등인 것으로 나타남

〈표 II-4-4〉 2013~2017년 홍콩 포도 재수출 비중

(단위: 천 톤,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총수입량	167	196	206	236	237
재수출 비중	76	78	81	87	85

* 출처 : 미국 농무부(USDA)(<https://www.usda.gov/>)

2) 수입제도 및 규격

가. 통관 및 검역

- 홍콩의 수입통관은 수입신고 전 준비, 수입신고, 물품검사, 관세납부 및 통관완료의 절차로 이루어짐
 - 수입신고 전 적하목록을 제출해야 하며 홍콩세관에서 규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허가증을 구비해야함
 - 수입허가증 발급대상 품목에는 마약류, 폭발물, 쌀, 냉동육, 가금류 등이 있으며, 포도의 경우 수입허가증이 필요하지 않음
 - 입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등 증빙서류를 수입 신고서와 함께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함
 - 식품류의 경우 건당 HK\$0.2(한화 약 30원)를 지불해야 함
 - 전자적으로 정보를 처리하여 위험성이 낮은 물품은 별도의 검역 없이 빠르게 통관시키며 일부에 대해서만 현장 검사를 실시함
 - 전자적 사전검사시스템에는 EMAN(해상운송), ACCS(항공운송), ROCARS(육상운송)이 있으며, 화물의 정보를 도착 전 해당 시스템에 제출하도록 함
 - 술, 담배, 메틸알코올, 탄화수소 이외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포도 역시 관세 납부절차 없이 통관이 완료됨

나. 라벨링

- 홍콩에서 유통되는 신선 포도는 별도의 라벨링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식품 및 의약품의 성분 및 라벨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포장식품에 대한 라벨링 규정은 존재하지만, 다른 첨가 재료가 없는 신선 과일은 면제가 허용됨

다. 인증

- 홍콩에는 유기농 제품 라벨링에 대한 특정한 규정은 없으나, 홍콩유기농센터의 인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품에 유기농 로고를 부착 할 수 있음
 - 2004년 말 HKORC(Hong Kong Organic Resource Center)가 유기농인증서비스를 공식 출범함

- 해당 인증은 2012년 국제유기농운동연합(IFOAM)에 의해 인정받았으며, 2015년 국제표준화 기구(ISO)의 인증 받음
- 유기농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인증회사에 연락하여 수수료를 지불해야함
- 신청서를 제출하고 최종 의결을 받으면 인증서가 발급됨

〈그림 II-4-1〉 홍콩 유기인증 라벨



*출처 : HKORC(<https://www.hkorc.org/>)

라. 안정성

□ 살충제 잔류농약 허용기준은 ‘Pesticide Residues in Food Regulation, Cap.132CM’ 에 따라 식품 환경 위생 부서(FEHD)에서 시행함

- 해당 기준에 따른 살충제 잔류농약 허용기준은 총 144개로 하기와 같음

〈표 II-4-5〉 홍콩 포도 잔류농약 허용기준

순번	성분명	(단위: mg/kg)
		기준치
1	2,4-D	0.1
2	Abamectin	0.02
3	Acephate	0.5
4	Acequinocyl	1.6
5	Aldicarb	0.2
6	Amitrole	0.05
7	Azinphos methyl	1
8	Azocyclotin	0.3
9	Azoxystrobin	10
10	Benalaxyl	0.5
11	Bifenthrin	0.2
12	Boscalid	5
13	Bromide ion	20
14	Bromopropylate	2
15	Buprofezin	1
16	Captan	25

17	Carbaryl	10
18	Carbendazim	3
19	Carbon disulfide	0.1
20	Carbosulfan	0.1
21	Carfentrazone ethyl	0.1
22	Chlorantraniliprole	1
23	Chlormequat	0.75
24	Chlorothalonil	10
25	Chlorpyrifos	1
26	Chlorpyrifos methyl	1
27	Clofentezine	2
28	Cryolite	7
29	Cyfluthrin	1
30	Cyhalothrin	0.2
31	Cyhexatin	0.3
32	Cymoxanil	1
33	Cypermethrin	0.2
34	Cyprodinil	3
35	Deltamethrin	0.2
36	Dichlobenil	0.15
37	Dichlofluanid	15
38	Dichlorvos	0.2
39	Dicloran	7
40	Dicofol	5
41	Difenoconazole	4
42	Dimethomorph	2
43	Dithianon	3
44	Dithiocarbamates	10
45	Diuron	0.05
46	Endosulfan	2
47	Esfenvalerate	0.2
48	Ethephon	1
49	Etoxazole	0.5
50	Famoxadone	2
51	Fenamidone	1
52	Fenarimol	0.3
53	Fenbuconazole	1
54	Fenbutatin oxide	5
55	Fenhexamid	15
56	Fenitrothion	0.5
57	Fenpropathrin	5
58	Fenpyroximate	0.1
59	Fenthion	0.05
60	Fenvalerate	1
61	Fluazinam	0.5
62	Flubendiamide	2
63	Fludioxonil	2
64	Flumioxazin	0.02
65	Fluopicolide	2
66	Fluopyram	2
67	Fluridone	0.1
68	Flusilazole	0.5

69	Folpet	10
70	Forchlorfenuron	0.03
71	Fosetyl aluminium	10
72	Glufosinate ammonium	0.1
73	Glyphosate	0.2
74	Haloxypop	0.02
75	Hexythiazox	1
76	Hydrogen phosphide	0.01
77	Imidacloprid	1
78	Indoxacarb	2
79	Iprodione	20
80	Isoxaben	0.01
81	Kresoxim methyl	1
82	Malathion	8
83	Mandipropamid	2
84	Mepiquat chloride	1
85	Meptyldinocap	0.2
86	Mesotrione	0.01
87	Metalaxyl	1
88	Metaldehyde	0.15
89	Methidathion	0.2
90	Methomyl	0.3
91	Methoxyfenoxide	2
92	Metrafenone	4.5
93	Mevinphos	0.5
94	Myclobutanil	1
95	Naled	0.5
96	Napropamide	0.1
97	Norflurazon	0.1
98	Oryzalin	0.05
99	Oxyfluorfen	0.05
100	Paraquat	0.01
101	Parathion	0.01
102	Parathion methyl	0.5
103	Penconazole	0.2
104	Penoxsulam	0.01
105	Permethrin	2
106	Phosmet	10
107	Phoxim	0.05
108	Piperonyl butoxide	8
109	Procymidone	5
110	Profenofos	0.05
111	Propargite	7
112	Propyzamide	0.1
113	Pyraclostrobin	2
114	Pyrethrins	1
115	Pyridaben	5
116	Pyrimethanil	4
117	Pyriproxyfen	2.5
118	Quinoxyfen	2
119	Rimsulfuron	0.01
120	Simazine	0.2

121	Spinosad	0.5
122	Spirodiclofen	0.2
123	Spirotetramat	2
124	Spiroxamine	2
125	Sulfur dioxide	50
126	Tebuconazole	2
127	Tebufozide	2
128	Tetraconazole	0.5
129	Thiacloprid	1
130	Thiamethoxam	0.5
131	Tolyfluanid	3
132	Triadimefon	1
133	Triazophos	0.02
134	Trichlorfon	0.1
135	Trifloxystrobin	3
136	Triflumizole	2.5
137	Trifluralin	0.05
138	Zoxamide	5
139	Aldrin and Dieldrin	0.05
140	Chlordane	0.02
141	DDT	0.05
142	Endrin	0.01
143	Heptachlor	0.01
144	Hexachlorocyclohexane (HCH)	0.05

* 출처 : 홍콩잔류농약허용기준 데이터베이스

□ 2019년 11월부터 시행되는 ‘식품 불순물(중금속 오염) 2018 개정 규정’에 따라
과일류에는 남이 최대 0.1mg/kg까지 허용됨

III. 시장현황 비교 · 분석

1. 시장현황 비교

□ 2018년 국내 포도 생산량(175,399톤) 중 對홍콩 수출량은 314톤으로 매우 적은 비중(0.2%)에 불과함

- 對홍콩 수출단가는 15,351원/kg으로 평균 단가보다 고가에 수출되고 있음
- 또한 수출단가는 동년 국내 도매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국내 농가의 수출 매리트가 존재했던 것으로 평가됨

□ 홍콩의 한국산 포도 수입량은 전체 수입 중 0.2%에 불과한 수준이나, 한국산 포도의 수입단가는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임

- 한국산 포도의 수입단가는 kg당 11,543원으로 평균 수입단가보다 약 5배가량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이는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높은 샤인머스켓 위주로 수입되어 평균보다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구분		한국	홍콩
생산	생산량(2018)	175,399톤	생산되지 않음
	출하시기	8~11월	생산되지 않음
	생산품종	캠벨, MBA, 거봉, 샤인머스켓 등	생산되지 않음
유통	도매물량(2018)	N/A	N/A
	도매가격(2018) ¹⁾	[캠벨] 4,608원/kg [MBA] 3,788원/kg [거봉] 7,142원/kg [샤인머스켓] 13,003원/kg	N/A
수출입	수출입물량(2018)	[전체] 1,275톤 / [홍콩] 314톤(24.6%)	[전체] 237,920톤 / [한국산] 426톤(0.2%)
	수출입가격(2018)	[평균] 12,971원/kg ²⁾ / [홍콩] 15,351원/kg	[평균] 2,499원/kg / [한국산 11,543원/kg ³⁾
	관세율	對홍콩 신선 포도 수출 시 무관세 수출이 가능함	

* 주1: 국내 도매가는 상(上)품 기준(평균 7,000원/kg)

* 주2: 국내 포도 품목별 수출가는 샤인머스켓 21,539원/kg, 거봉 8,211원/kg, 캠벨 3,808원/kg

* 주3: 한국의 對홍콩 수출단가 집계치와 홍콩의 한국산 포도 수입단가 집계치에 차이가 있으나, 각 국에서 제공하는 공식 통계자료이므로 별도의 수정 없이 기재함(ITC Trademap 자료 활용)

* 주4: 환율기준 : 1USD=1,190.0원, 1HKD=150.47원

* 출처 : 통계청>국가통계포털>국내통계>주제별통계>농림어업(kostat.go.kr), GTA(Global Trade Atlas), 통합무역정보 서비스(<http://www.tradenavi.or.kr/>)

2. 수출국 시장분석

□ 홍콩은 포도를 생산하지 않으며 전량 수입을 통해 연중 공급되고 있음

- 주요 수입국으로 칠레, 호주, 페루 등이 있으며, 한국산은 0.2%의 매우 적은 비중을 차지함
- 한국산 포도는 9~11월동안 집중적으로 유통되며 해당 기간 동안에는 페루산, 미국산, 일본산 등이 주로 유통됨
 - 이에 따라 한국산 포도의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차별화된 전략이 요구됨

구분		물량	유통시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홍콩산		N/A												
수입산	칠레산	107,258톤(45.1%)												
	호주산	44,411톤(18.7%)												
	페루산	35,056톤(14.7%)												
	미국산	23,651톤(9.9%)												
	일본산	917톤(0.4%)												
	한국산	426톤(0.2%)												

□ 한국산 포도의 수입비중은 적으나 한국산 포도에 대한 현지 소비자의 인지도는 높은 편이며, 특히 주력 수출품종인 샤인머스켓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바탕으로 향후 시장 확대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 현지 시장에서 샤인머스켓은 고급 상품으로 인식되며 한국산과 일본산의 선호도가 높은 가운데, 한국산 샤인머스켓은 일본산 대비 합리적인 가격수준을 바탕으로 품질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이 요구됨
- 또한 맛과 품질이 균일하지 않은 문제가 발견됨에 따라 우수한 품질을 균등한 수준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음

소비행태	· 포도 수요는 전량 수입산으로 충당 · 2016년 이후 3년간 국내 총 포도 소비량 지속 증가('18/ 55,000톤 소비) · 주요 구매요인은 가격 > 맛(당도) > 안전성 > 품종 > 원산지 순으로 영향 미침 · 온라인을 통해 구입하는 형태 증가 · 샤인머스켓 주로 생식용 소비(단가 높아 업무용 부적합)
품질비교	· 샤인머스켓은 고급 상품으로 인식되며 한국산과 일본산 선호도 높음 · 한국산 샤인머스켓은 일본산 대비 합리적인 가격대이나 맛과 품질 균일성 미흡 · 적포도/흑포도는 칠레, 호주, 페루산 위주 유통됨
한국산인식	· 한국산 포도에 대한 인지도와 구입 경험 높은 편('18 소비자 설문결과) · 한국산 샤인머스켓은 일본산 대비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 접근성 높은 편

□ 원산지별 평가

홍콩산	· 생산되지 않음	칠레산	· 적포도/흑포도 위주 유통 · 씨 없는 포도 중점 공급 · 가격경쟁력 바탕으로 증가시장 형성
호주산	· 적포도/흑포도 위주 유통 · 씨 없는 포도 중점 공급 · 가격경쟁력 바탕으로 증가시장 형성	페루산	· 적포도/흑포도 위주 유통 · 씨 없는 포도 중점 공급 · 가격경쟁력 바탕으로 증가시장 형성
미국산	· 적포도/흑포도 위주 유통 · 씨 없는 포도 중점 공급 · 가격경쟁력 바탕으로 증가시장 형성	일본산	· 샤인머스켓 최상위 프리미엄 상품으로 인식
중국산	· 샤인머스켓 품질은 낮으나 가격경쟁력 확보	한국산	· 샤인머스켓 고품질이며 합리적 가격대이나, 일본산 대비 낮은 품질경쟁력

□ 원산지별 가격비교

구분	자국산	칠레산	호주산	페루산	미국산	일본산	중국산	한국산
수입단가	-	2,142원/kg	2,618원/kg	2,142원/kg	2,737원/kg	22,491원/kg	N/A	11,543원/kg
도매가	N/A	N/A	N/A	N/A	N/A	N/A	N/A	N/A
소매가	N/A	N/A	N/A	N/A	N/A	27,773원/개 (샤인머스켓)	14,868원/개 (샤인머스켓)	22,495원/개 (샤인머스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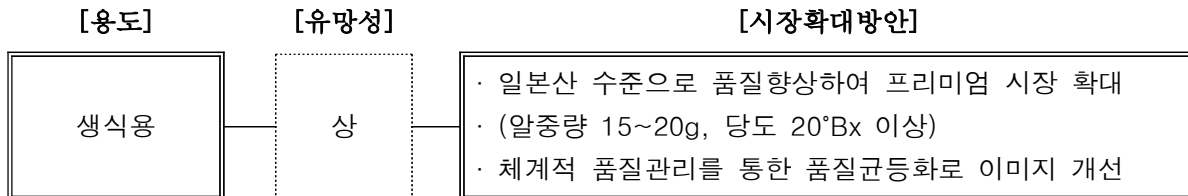
주1) 소매가는 현지조사(2019.11) 시점 소매유통채널 샤인머스켓 평균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함

주2) 환율기준 : 1USD=1,190.0원, 1HKD=150.47원

* 출처 : GTA(Global Trade Atlas), ITC Trademap(www.trademap.org)

IV. 시장확대방안

1. 품목유망성



□ 홍콩의 포도 시장에서는 일본산과 한국산 샤인머스켓이 고평가를 받으며 유망 품목으로 성장함

- 홍콩의 포도 수요는 전량 수입산으로 충당되며, 적포도와 흑포도는 칠레·호주·페루산의 비중이 높음
- 한국산 포도는 샤인머스켓이 가장 유망할 것으로 판단되나, 품질 균등성 등의 개선점이 요구됨
 - 샤인머스켓은 홍콩에서 수입하는 포도 품종 중 가장 고급으로 인식되며 프리미엄 상품으로 유통되는데, 특히 일본산과 한국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
 - 한국산 샤인머스켓은 품질이 좋으며 일본산 대비 합리적인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 소비자의 접근성이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맛과 품질이 일정하지 않아 일본산 샤인머스켓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으로 평가됨
 - 일본산 샤인머스켓은 홍콩 내 프리미엄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여 프리미엄화를 이뤄낸 반면, 한국산의 경우 아직까지 포지셔닝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홍콩에서 샤인머스켓은 생식용 소비가 주를 이루고 있음
 - 이는 홍콩 소비자의 소득수준이 아시아 권역에서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샤인머스켓 자체의 단가가 높아 업무용으로 활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 일부 고급(럭셔리) 레스토랑이나 베이커리에서는 상품의 차별화를 위해 고가의 샤인머스켓을 업무용으로 활용하기도 함

〈표Ⅳ-1-1〉 홍콩 포도 원산지별 주요 유통시기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한국산												
칠레산												
호주산												
페루산												
미국산												
일본산												

샤인머스켓 고품질로 인식됨	- 상품 품질균등성 요구됨 - 샤인머스켓 포지셔닝 미흡 - 일본산 대비 선호도 낮음
소량 수입되는 일본산 샤인머스켓이 프리미엄 시장 형성	- 주요 유통시기 경쟁강도 강함 - 프리미엄 샤인머스켓 시장 외 일반 증가 시장 칠레, 호주, 미국, 페루산 점유율 높음

2. 시장확대방안

□ 일본산 샤인머스켓의 품질기준 벤치마킹을 통해 한국산 샤인머스켓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함

- 일본산 샤인머스켓 특품의 당도는 20° Bx 이상으로, 한국산 수출규격인 17° Bx 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일본산 샤인머스켓은 개별과의 크기는 작을수록, 당도는 높을수록 프리미엄으로 취급되는데, 과가 커질수록 당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과 사이즈는 최소 L(350~450g)에서 최대 3L(550~650g) 수준으로 생산이 권장됨
 - 또한 샤인머스켓은 과의 크기보다 알 크기가 클수록 고품질로 인식되며, 일본산 프리미엄 샤인머스켓의 알 중량은 15~20g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비해 한국산 수출용 샤인머스켓의 품질기준은 과중 500~700g, 알중량 13~15g일 경우 프리미엄으로 인식됨
- 이에 일본산 샤인머스켓의 프리미엄 기준 수준으로 한국산의 품질을 향상해 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임

〈표Ⅳ-2-1〉 일본산 및 한국산 포도 품질기준 비교

원산지	품종	과중	당도
일본산(프리미엄)	샤인머스켓	500~700g 알중량 15~20g	20 ° Bx 이상
한국산(프리미엄)	샤인머스켓	500~700g 알중량 13~15g	17 ° Bx 이상

□ 체계적인 품질관리 및 균등한 상품의 선별을 통한 이미지 제고가 필요

- 대체적으로 한국산 샤인머스켓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나, 품질이 균등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물량이 공급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함
 - 현지 수입업체와의 인터뷰 결과, 한국산 샤인머스켓은 산지별 맛·크기 등 상품의 균등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
 - 반면 일본의 경우 생산량을 조절하여 최고품질의 샤인머스켓을 선별·수출함으로써 프리미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됨
 - 아직까지 한국의 샤인머스켓 생산은 높은 생산율을 지향하고 있어 상품의 품질이 균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이에 한국산 샤인머스켓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생산에서부터 출하 및 선별까지 규격화된 기준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품질관리가 요구됨

시장 확대 방안	품질	· 일본산 수준으로 품질기준 향상하여 시장 내 경쟁력 확보 · 일본산(프리미엄) 샤인머스켓 [과중] 500~700g(알 중량 15~20g) [당도] 20° Bx 이상
	홍보·마케팅	· 균질한 상품성과 안정적인 물량공급 선행 · 포장의 기능적 측면 개선으로 운송 시 상품성 유지 · 고품질 프리미엄 상품 인식을 위한 브랜딩 필요